

럭비 순천공고 금메달
수구 전남선발팀 2연패

전국체전 폐막, 광주 13위·전남 12위 ... 경기 11연속 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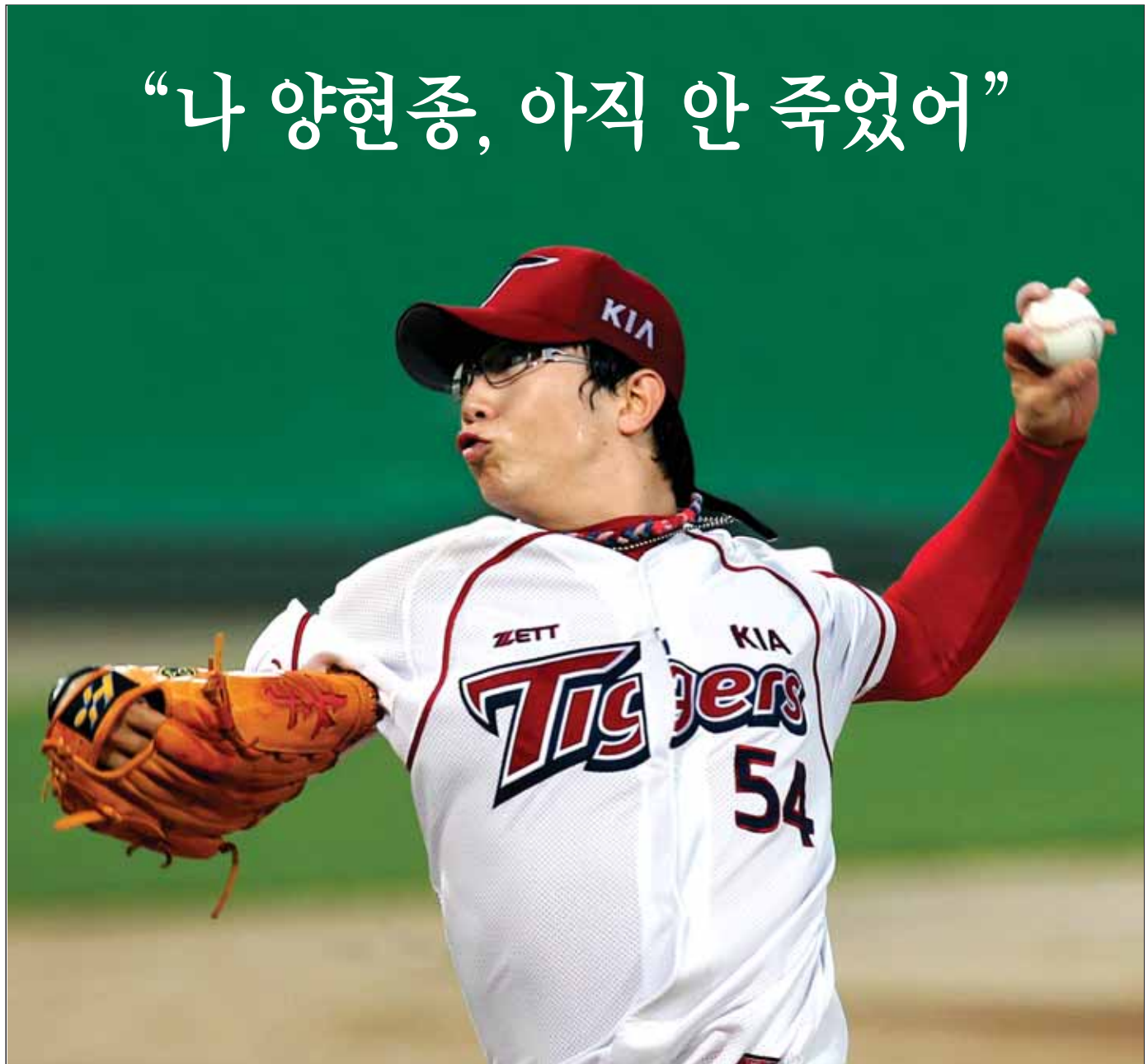
순천공고 럭비부가 16년 만에 전국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선발팀은 수구 남고부 2연패를 달성했다.
순천공고가 17일 경산생활체육공원럭비구장에서 열린 제93회 전국체육대회 럭비고등부 결승에서 충북고를 38-20으로 꺾고 16년 만에 전국체전 정상에 올랐다.
수구 강호 전남제일고와 광양백운고로 꾸려진 전남선발팀은 강원체고를 9-7로 누르고 2년 연속 금메달에 성공했다.
레슬링 자유형 69kg에 출전한 김성복(전남체고)과 복싱 남고부 헤비급 김지웅(전남체고), 남대부 밴드급 성동형(한국체대)의 금메달까지 더해 전남은 대회 마지막날 5개의 금메달을 수확했다.
남고부 복싱 라이트급 김민석(전남체고), 개인도로 여고부 김보배(나주 미용고)의 은메달을 포함 이번 대회 전남의 전적은 금39, 은49, 동59가 됐다.
전남은 육상, 수영, 역도, 양궁 등 기록종

목의 경기력 상승으로 지난해 대비 12개의 메달이 늘었다. 종합득점도 406점 오른 2만 8471점이 됐지만 순위는 한 계단 내려앉으며 12위가 됐다.
복싱 이동운(한국체대)은 광주에 마지막 금메달을 안겨줬다.
이동운은 대구 용산중 체육관에서 열린 남대부 웰터급 결승에서 강원대표 김화래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레슬링에서는 4개의 은메달과 1개의 동메달이 나왔다.
광주체고의 김슬기·박찬명이 남고부 자유형 54kg와 120kg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조선대 유수진(자유형 60kg)과 광주 남구정 정영호(자유형 66kg)는 각각 남대부와 일반부 은메달을 차지했다. 광주체고 홍영철은 자유형 69kg 동메달을 수확했다.
복싱 오철중(상무)은 남자일반부 라이트 웰터급 동메달을 따냈다.

조선대 농구와 광주대 축구 동메달을 더하며 광주는 이번 전국체전에서 금38, 은37, 동54의 성적을 냈다.
광주는 지난해보다 3736점이 높은 2만 6410점으로 종합순위 13위에 올랐다. 2003년 원정 이후 8년 만에 14위를 벗어나면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또 광주시선수단은 115.15%의 성취율로 성취상 2위도 차지했다.
한편 처음으로 세종시가 참가하며 17개 시도의 대결로 벌어진 이번 전국체전에서는 경기도가 11년 연속 종합우승을 이뤘다.
안방에서 대회를 치른 대구가 역대 최고인 2위에 올랐고, 서울이 3위를 차지했다.
대회 최우수선수상(MVP)의 영예는 기계체조 여자 고등부에서 5관왕에 오른 삼지해(대구체고)에게 돌아갔다.
내년 전국체전은 2014 아시안게임의 예행 연습 성격으로 인천에서 치러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정 투런포 17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2012 팔도 프로야구 플레이 오프 2차전 SK와 롯데의 경기에서 SK 최정이 1회말 1사주자 1루 상황에서 2점 홈런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나 양현종, 아직 안 죽었어”

2012시즌은 최악의 해로 남았다. 어깨 통증으로 스프링캠프에서 중도귀국했던 양현종은 28경기에서 나와 41이닝을 던지며, 1승2패2홀드 5.05의 방어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2010년 16승을 기록하며 김광현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양현종이 저조한 성적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비난해도 원망 안 해 실력이 중요함을 배웠지 내가 살아있다는 것 야구로 보여주는 수밖에”
양현종은 “부상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려면 던지는 체력, 근육을 익혀야 한다고 해서 캠프에서 시원시원하게 공을 던질 생각이야. 스스로 이겨내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올 시즌에는 얻은 게 하나도 없었다. 야구를 못하니깐 좋은 얘기도 많이 나왔다. 누굴 원망할 것 없이 내가 잘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며 “잘하기 위해 연습을 잘하겠다. 야구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캠프에서 해야 할 것이 많다. 살아서 돌아오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국 카약대회
장성호에서 열린다

장성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전남도와 장성군이 후원하는 ‘2012년 도지사배 전국카약대회’가 다음달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장성호에서 열린다.
전국 중학생 이상 남녀 300여명의 선수 및 동호인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남녀별로 일반부, 고등부, 중등부로 나뉘어 카약 1인승, 카약 2인승, 용선 11인승 등 3개 종목에서 기량과 실력을 겨루는 화합 한마당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종목별 1~3등에게는 메달과 함께 30만원부터 10만원까지 상금이 지급되며, 중·고등부 수상자에게는 상품권이 지급된다.
대회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을 원하는 선수 및 동호인은 장성군체육회 홈페이지(http://sports.jangseong.go.kr/)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군청 문화관광과 또는 체육회에 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장성군체육회(061-393-767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장성은 장성호 주변 170만㎡를 대상으로 레이크 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연수와 휴양, 레포츠를 잇는 호반 최대의 호반관광지로 지역에 많은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된다.
/충부취재본부=김용호기자 yongho@

‘김연경 사태’ 국감장 달군다

민주, ‘이적 논란’ 다뤄
김연경 내일 기자회견
한국 여자배구의 ‘거포’ 김연경(24)의 해외 이적과 관련한 문제가 국감장상을 뜨겁게 달군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정세균, 최재천, 최민희, 노웅래 의원 측은 19일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박용성 대한체육회 회장에 ‘김연경 사태’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 문방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15일 대한배구협회, 대한체육회, 흥국생명에 김연경의 계약과 관련한 서류를 요청한 상태다. 정세균 의원 측은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김연경 문제에 관심을 뒤흔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다”면서 “자료를 받아 논란이 된 경위나 계약관계, 당사자들의 입장을 확인해 질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연경 사태’를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다루기로 뒤늦게 결정되면서 김연경의 증인 채택은 불발됐다. 국회법 규정상 증인 채택은 국정감사 7일 전에 완료해야 하기 때



김연경
문이다. 대신 김연경은 국정감사 직전인 19일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연경 사태’는 김연경과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 구단이 김연경의 신분을 놓고 불협화음을 내면서 벌어졌다. 김연경은 대한배구협회가 국제배구연맹에 3자 간 비공개 합의를 발송해 자신의 신분 결정에 영향을 끼쳤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PGA 티켓 잡아라” 한국계 골퍼 총출동

맥글래드리 클래식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가을 시리즈 세 번째 대회인 맥글래드리 클래식(총상금 400만달러)이 18일 미국 조지아주 시아일랜드 골프장의 시아이드 코스(파70·7055야드)에서 막을 올린다.
앞선 가을시리즈 대회처럼 이번 대회에도 상금랭킹을 125위 안으로 끌어올려 다음 시즌 출전권을 얻어야 하는 선수들이 총출동한다.
한국(계) 선수로는 강성훈(25·신한금융그룹), 재미교포인 리처드 리(24), 뉴질랜드 교포 대니 리(22·캘러웨이)가 출전해 랭킹 끌어올리기에 도전한다.
대니 리는 지난 14일 막을 내린 프라이스 닷컴오픈에서 공동 16위에 올라 시즌 상금을 167위로 2계단 끌어올렸다. 반면에 리처드 리는 공동 43위에 머물러 랭킹이 130위에서 134위로 밀려났다.
강성훈은 올시즌 절반 이상의 대회에서 첫 탈락하는 등 부진해 상금랭킹이 192위에 불과하다.
지난 가을시리즈 대회들에서 신인들이 좋

광주태권도협 이영석 전무 체육훈장 백마장
광주시태권도협회 이영석(59) 전무가 체육훈장 백마장을 수상했다.
이 전무는 최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2 체육발전 유공자 정부포상 전수식’에서 체육훈장 백마장을 받았다.
이 전무는 지난해 태권도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된 이후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해 2011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등 태권도의 저변확대와 국위 선양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전무는 “태권도의 참모습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저변을 확대하며 확고한 세계인의 무도 스포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서 전국 척수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전국 척수장애인 어울림 한마당이 17일 광주에서 개막했다.
광주시에장애인체육회가 개최하는 2012 전국 척수장애인 어울림 한마당이 18일까지 영주실내체육관에서 계속된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한마당에는 13개 시도에서 500여명이 찾아 생활체육대회, 종합재활마당, 문화예술교류전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척수장애인 생활체육 선수들은 생활체육대회를 통해 럭비, 배드민턴, 탁구 등 총 3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또 종합안내소, 놀이마당, 정보마당, 정보마을 등 4가지 주제의 종합재활마당 부스가 마련되며, 척수장애인의 문화예술작품도 전시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